

M. Heidegger에 있어서 存在물음

양 영 웅

목 차

- I. 서 론
- II. 존재물음에 대한 편견
- III. 존재물음의 구조와 우위
- IV. 존재물음을 인도하는 실마리로서의
해석학적 현상학
- V. 결 론

I. 서 론

존재에 대한 물음은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적 탐구의 단초로 된 이래 중세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철학의 근본문제이다. 서양철학의 주제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이 물음은 Platon과 Aristoteles의 사색을 숨가쁘게 만들었고, 중세의 Schola 철학을 거쳐, 근세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또한 수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탐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은 존재의 근원적인 해명도 주어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물음자체가 불명료해진 가운데, 존재개념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 안주하고 있으며, 이제는 물음의 필요성 조차도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이 Heidegger가 존재물음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다. 이리하여 Heidegger는 이 물음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내면적인 본질에 속하는 문제"¹⁾라고 생각하고, 존재에 관한 자신의 방대한 사상체계를 전개시켜 왔음은, 그가 그의 著書 「존재와

* 인문대학 조교수

1) M. Heidegger, Holzwege, 2. Aufl., Frankfurt A. M., Vittorio Klostermann, 1952, s. 25.

시간]의 첫머리에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구체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다음에서 논술하고자 하는 의도이다.”²⁾라고 한 언설에서도 분명하다.

Heidegger가 이 저서에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물론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새로이 설정하여 「존재일반의 의미」를 해명하는 존재론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이 「존재일반의 의미」를 전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이 문제의 올바른 문제결정 방식을 전개하여 존재일반의 의미를 해명하기 위한 지평(Horizont)을 여는 것을 기도하였다. 그렇다면 존재물음의 초월적 지평은 어디에 있는가? 그 실마리는 우리들 인간 존재인 「현존재」(Dasein)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일반의 의미를 물으려고 할 때 우선 무엇인가의 「존재이해」(Seinsverständnis)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실마리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현존재야말로 존재하면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존재이해가 현존재의 존재규정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존재를 이해하며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오직 하나의 존재자인 현존재를 실마리로 하여, 그 현존재가 가진 존재이해의 구조를 분석해 나가면 존재일반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릴 것이 아니겠는가? 존재이해를 가지고 있는 현존재 따라서 자기자신의 존재를 문제삼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현존재의 존재를 Heidegger는 실존(Existenz)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실존의 존재구조를 실존범주(Existenzialien)라고 하면서 존재일반의 의미물문에 앞서 현존재를 실존론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는 기초적 존재론(Fundamentalontologie)이라고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Heidegger가 전개한 실존분석에 앞서, 물음의 구조와 학문적인 방법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존재물음을 새롭게하는 필연성, 물음의 구조 및 존재론적 물음의 방법으로서 해석학적 현상학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존재물음에 대한 편견

철학의 가장 내면적인 본질에 속하는 문제인 존재물음이 철학의 역사에서 침묵하게 되었고, 갖가지의 미로와 채색에 싸이면서 낡은 것이 되고만 까닭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Heidegger는 존재를 학문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마련된 그리스적 발단을 토대삼아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은 불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물음을 등한시해도 좋다”³⁾고 하는 하나의 도그마가 조작되고 말

2) M. Heidegger, Sein und Zeit, Max Niemeyer, Tübingen, 1967, s. 1. (이후부터 S. u. Z로 함)

3) S. u. Z, s. 3~4.

※) 이 transcendens라는 말은 Schola 철학에 있어서는 Aristoteles의 Categoria에 포함될 수 없는 개념을 말한다. 안 상진, M. Heidegger에 있어서 존재의 진리, 철학논구, 7, 서울대학교 철학과, p. 23, 註. (이후 철학논구, 7로 약칭함)

았는데, 이 편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존재개념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Heidegger는 지적한다.

첫째로,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존재의 이해 내용은 사람들이 존재로서 포착하는 모든 것 속에 그때마다 이미 함께 포괄되어 있다. 그러나 존재의 보편성은 전통 논리학에서 말하는 類概念과 같은 것으로서의 보편성은 아니다. 존재자는 類와 種에 따라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존재에 있어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존재의 보편성은 모든 보편성을 초월하고 있다. 존재는 중세 존재론에서의 명칭을 따르자면 하나의 초월자(transcendens)⁴⁾이다. 철학의 근본주제로서의 존재는 존재자의 어떠한 유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존재자는 모든 존재자에 관계한다. 존재의 보편성은 유보다도 차원이 높은 곳에서 찾아져야 한다. 존재와 존재구조는 모든 존재자와 존재자에 속하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의 모든 가능한 규정성을 넘어서고 있다. "존재는 극단적인 초월이다."⁵⁾ 그러나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경우, 이 말이,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 가장 명료한 개념이어서, 그 이상의 논의를 전연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될 수 있을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존재라는 개념은 차라리 지극히 흐릿한 개념으로 머물러 있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둘째로, 존재라는 개념은 정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 명제는 존재개념의 최고의 보편성으로부터 추론되었다. 정의는 최근류와 종차에 의해 얻어진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사실상 존재는 존재자로서 개념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존재에는 여하한 성질도 덧붙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존재에 존재자가 귀착된다고 하는 것과 같이는 존재를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존재를 보다 높은 여러 개념으로부터 이끌어 낼 수도 없고, 보다 낮은 여러 개념에 의해 서술할 수도 없다.⁶⁾ 그러나 이 때문에 존재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존재가 정의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로 이 물음을 물도록 재촉하는 것이 아닐까?

셋째로,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 모든 인식작용, 진술작용에 있어서 존재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으며, 또 이 어휘는 가령 「하늘은 푸르게 <있다>(Der Himmel ist blau.), 「나는 기뻐하고 <있다>(ich bin froh.)」 등과 같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잘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이 같은 소박한 이해의 용이성은 진정한 이해의 곤란성을 논증할 뿐이다. 누구나가 지니고 있는 존재에 대한 소박한 이해는 도리어 존재의미가 어둠으로 덮여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⁷⁾

4) S. u. Z, s.3.

5) Ibid., s.38, 철학논구. 7, p.23에서 재인용

6) Ibid., s.4.

7) Ibid., s.4.

이것이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되풀이하는 원칙적인 필연성이다.

이상과 같은 각종 편견을 고찰해 볼 때, 분명해진 것은 존재를 묻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물음 자체가 흐리멍텅해서 방향을 잃고 있다는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물음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우선 그 문제설정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한다는 바로 그것이어야 할 것이다.

Ⅲ. 존재물음의 구조와 우위

이제 우리는 앞에서 논한 「존재」개념에 대한 편견을 단초로 하여 존재개념은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있으면서도 그 이해가 불완전하고, 존재물음은 하나의 특수한 물음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 물음이 하나의 기초적인 물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기초적인 물음 「그 자체」라고 한다면, 이 존재문제가 하나의 「두드러진」 물음으로서 밝혀지기 위해서는 애당초 물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속해 있는가? 하는 점이 물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물는다든 것은 그 어느 것이건 하나의 탐구이다.”⁸⁾ 물는다든 것은 존재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 존재자를 인식하면서 탐구하는 일이다. 물는다든 일은 무엇에 대하여 묻고 추궁한다는 의미이므로 그 물음에 있어서는 「물어지는 것」(Gefragtes)〈존재〉 즉 물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무엇에 대하여 묻고 추궁한다는 것은 통틀어 어떤 방식에 있어서든지 무엇인가를 단초로 삼아 물어본다는 그것이다. 그러므로 물는다든 일에는 물어지는 것 이외에 「물음이 걸려지는 자」(Befragtes)〈존재자〉가 속해 있으며, 이 물음이 걸려지는 자를 우리는 물음의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탐구하는 물음, 바꾸어 말하면 특히 이론적인 물음에 있어서는 물어지는 것이 규정되어 개념화되지 않으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지는 것 안에는 본래적으로 지향되고 있는 것으로서 「물어내어지는 것」(Erfragtes)〈존재의미〉이 숨어 있어서, 이것에 도달했을 때에 물음은 그 목적을 이루는 셈이 된다.”⁹⁾

지금까지 우리는 존재물음의 구조제기(Strukturmomente)에 대하여 알아보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취되어야 할 이 물음에 있어서 물어지는 것은 존재이다. 즉 존재자를 존재자로서 규정하는 바로 그것, 설령 존재자가 어떤 모양으로 설명되든간에, 존재자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마다 이미 이해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¹⁰⁾

물음에 있어서 물어지는 것은 존재이며 이 물어지는 것 안에는 물어내어지는 것이 숨어 있고,

8) Ibid., s. 5.

9) Ibid., s. 5.

10) Ibid., s. 6.

이 물어내어지는 것이 존재의 의미라면, 이 존재의 의미를 물어내기 위해서는 미리 물음이 걸려지는 자로서의 존재가 물음의 단초로서 요구된다. 왜냐 하면, “존재가 물어지는 것이며, 더우기 존재란 존재자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 이상, 존재문제에 있어서 물음이 걸려지는 자는 존재자 자체”¹¹⁾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존재자가 물음이 걸려지는 자로서 그의 존재를 開示하는 事例의인 존재자일까? 그러한 사례적인 존재자는 존재를 注視하면서 이해하고 개념작용을 하는 자인 동시에 그 자체 물음을 구성하는 자이어야 한다.¹²⁾ 그러므로 존재물음을 완성한다 함은 “물음”을 구성하는 그런 존재자를, 그의 「존재」에 있어서 전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¹³⁾ 그러한 존재자는 바로 우리들 인간존재이다. 이 존재문제의 물음은 인간존재의 존재양상인데 인간존재는 이 물음에서 「물어지는 것」(Gefragtes)〈존재〉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들 자신이 바로 그때마다 이 존재자인 것이며, 또 이 존재자는 묻는 일의 존재 가능성을 특히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존재자를 Heidegger는 述語的으로 「現存在」(Dasein)라고¹⁴⁾ 부른다.

이렇게 해서 존재문제의 물음이 현존재의 존재양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현존재는 물음의 단초로서 물음이 걸려지는 자임이 입증되게 된다. 그러나 한편 현존재는 또한 언제나 이미 그 어떤 존재이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존재」란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존재란 무엇인가」하고 우리가 물을 때엔 이미 우리는 「있다」(ist)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있다」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평균적인 막연한 존재이해를 Heidegger는 “현사실(Faktum)”^{*)}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우리는 존재문제를 이 문제 자체의 형식적 구조를 근거삼아 성격지어 보았다. 이로써 존재물음은 특유한 물음임이 분명해 졌으므로, 이제 그 물음이 다른 물음들에 특히 「두드러진」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그 물음과 현존재와의 관계가 밝혀지게 될 것이다.

존재물음의 대상인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언제나 그 어떤 존재자의 존재”¹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자는, 가령 역사, 자연, 공간, 생명, 인간존재, 언어 등등, 특정한 事象領域(Sachgebiet)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영역은 그것에 대응하는 학문 연구의 대상이 된다. 학문의 본래적인 임무는 그것에 의하여 사상영역이 구체적으로 개시되는 기초개념을 검토하는데 있다. 기초개념이란, 한 학문의 모든 주제적인 대상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사상영역을 선행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의하여 모든 적극적인 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바, 그 근본규정이기 때문에, 한 학문의 수준은 그 학문이 그것의 기초개념의 위기

11) Ibid., s. 6.

12) Ibid., s. 7.

13) Ibid., s. 7.

14) Ibid., s. 7.

*) 「현사실」 또는 「현사실성」은 현존재에 관계하며, 이에 대해 「사실」 또는 「사실성」은 사물적인 존재에 관계한다.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대양서적, 21, 1978, p. 107. 註②.

15) S. u. Z., s. 9.

에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이 기초개념의 새로운 확립을 위하여 학문의 여러 전문 분야에서 연구를 새로운 기초 위에 옮겨 놓으려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우리는 諸科學의 연구 이전에 이러한 기초개념을 철학적 문제로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⁶⁾

“모든 학문에 있어 주제로 되어 있는 대상의 밑바닥에는 사상영역이란 것이 있지만, 기초개념이란 그와 같은 사상영역을 모든 실증적인 탐구를 이끌고 있는 선행적인 이해에로 도달케 하는 모든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¹⁷⁾ 이러한 선행적인 기초개념을 만들어 내는 연구는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의 근본기구에 있어서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는 실증적인 여러 학문보다 먼저 행해지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실제로 먼저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¹⁸⁾

그러므로 “존재물음은 존재자를 이러저러한 존재자로서 남김없이 연구하고, 그때마다 이미 어떤 존재이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학문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아·프리오리한 조건일 뿐 아니라 존재적인 여러 학문에 앞서고 있고, 더구나 그러한 모든 학문의 기초를 설정하는 모든 존재론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자체이기도 한 것이다.”¹⁹⁾ 따라서 존재자를 그것의 존재에 있어서 묻는 “존재론적 물음은 실증과학의 존재적 물음에 비하면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다.”²⁰⁾

“학문 일반은 참된 모든 명제의 기초 확립의 연관전체라고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의의 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하다. 학문은 오히려 그것을 「현존재」라는 술어로서 나타내는 인간존재의 여러 태도(Verhaltungen)로서 이 「존재자」(Mensch)〈인간〉의 존재양식을 가지고 있다.”²¹⁾

현존재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그 존재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자이다. 이러한 존재이해는 현존재의 하나의 존재규정성이며, 현존재가 바로 이것에 의해서 다른 존재자와 구별될 수 있는 현존재의 존재적 우월성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이해가 현존재의 존재규정성이기 때문에 현존재는 물음이 걸려지는 자일 수 있는 것이라면, 존재물음에 있어서 그 물음을 자기 속에 포함하고 있는 현존재의 존재양식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존재일반의 의미를 물으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존재에 대하여 어렵פות이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자가 있어 이 존재자를 통로로 삼아야 할 것인데, “현존재는 존재하면서 존재와 같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 존재하는 존재자”²²⁾이다.

16) Ibid., s. 9, 철학논구. 7, p. 26.

17) Ibid., s. 10.

18) Ibid., s. 10.

19) Ibid., s. 11.

20) Ibid., s. 11.

21) Ibid., s. 11.

22) Ibid., s. 17.

그러나 “현존재는 다만 다른 존재자들 아래에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자는”²³⁾ 아니다. 현존재가 존재적으로 두드러져 있다는 것은 오히려 “현존재라는 이 존재자는 자기의 존재에 있어 이 존재 자체에로 <관계를 맺어> 간다는 것이 문제이다.”²⁴⁾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인 것이다. 즉 “현존재라는 이 존재자는 자기의 존재에 있어(스스로 존재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그의 존재 그 자체에 관제하는(그것에 교섭·대응하는, 그것에 관심·부심하는, 그것을 문제·외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기구(Seinsverfassung)에는 그가 스스로 존재하면서도 그 존재에 대하여 하나의 존재관계(태도, 교섭, 왕래)를 가진다는 사실이 속해 있다.”²⁵⁾ 이 사실은 또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존재자에게 고유한 것은 자기의 존재와 함께, 또 자기의 존재를 통해 이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존재이해는 그 자체가 현존재의 하나의 규정성”²⁶⁾인 것이다. 그래서 “현존재가 두드러져 있다는 것은 현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²⁷⁾ 때문이다.

여기에서 존재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론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다”²⁸⁾는 것을 가리킨다.

“현존재가 그것에 대해 이러 저러한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또 언제나 어떠한 방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존재자체를 Heidegger는 「실존」(Existenz)이라”²⁹⁾고 부른다.

그리고 현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자의 본질에 대한 규정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그 무엇」(sachhaltigen Was)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존재자의 본질은 이 존재자가 언제나 자기 자신의 것으로서의 자기의 존재가 아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존재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와 같은 존재자를 특징짓기 위한 순수한 「존재용어」(Seinsausdruck)로 선택되어 있는 것”³⁰⁾이라고 한다.

현존재는 자기 자신을 언제나 자기의 실존, 즉 자기 자신인가 또는 자기 자신이 아닌가 하는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서 이해한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현존재는 스스로 선택했거나, 혹은 그 두 가지 가능성 속에 빠져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때마다 이미 그 속에서 성장되거나(aufgewachsen), 이 세 가지 중의 어느 하나이다. 실존은 그것을 붙잡거나 또는 그것을 놓치거나 하는 방식에 있어 그때 그때의 현존재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Heidegger는 “실존의 문제는 실존하는 일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하며, 이 때 선도적인 현존재 자체의 이해(Verständnis)를

23) Ibid., s. 12.

24) Ibid., s. 12.

25) Ibid., s. 12, 채 수한, Heidegger의 분석론, 철학연구 28, 한국 철학 연구회, 1979. 12, p. 45
에서 재인용. -

26) Ibid., s. 12.

27) Ibid., s. 12.

28) Ibid., s. 12.

29) Ibid., s. 12.

30) Ibid., s. 12.

실존적(existenzielle)이라"³¹⁾고 부른다.

실존의 존재론적 구조는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분석하는 것에서 밝혀진다. 이 실존의 구조연관을 Heidegger는 실존성(Existenzialität)이라고 부른다. 이 실존성의 분석론은 실존적인 이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성적인 이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존재의 실존성적인 과제의 필연성과 그것의 가능성은 현존재의 존재기구 속에 지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존이 현존재를 규정하는 한, 현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자의 분석론은 그때마다 이미 언제나 실존성을 선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Heidegger는 실존성을 "실존하고 있는 존재자의 존재기구(Seinsverfassung)"³²⁾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존재기구라고 하는 이념 속에는 이미 존재의 이념이 숨어 있고, 그리하여 현존재의 분석론을 수행한다고 하는 가능성도 존재일반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선행적으로 완성시키는 일에 달려 있는 것이다.

모든 학문은 현존재의 존재방식이며, 이 존재방식에 있어서 현존재는 현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자에 대해서도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존재는 본질적으로(wesenhaft)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존재의 존재이해는 세계와 같은 것의 이해와 세계 안에서 만나는 존재자의 존재이해에 등근원적으로(gleichursprünglich)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³³⁾

따라서 현존재 아닌 존재자를 주제로 하는 여러 존재론도 前存在論的인 존재이해라는 규정성을 자기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 현존재 자체의 존재적인 구조에 그것의 기초가 설정되고 동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존재론이 거기서 발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존재론(Fundamentalontologie)은 현존재의 실존론적인 분석론(existenzialen Analytik)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³⁴⁾

이와 같이 현존재의 분석론이 기초존재론이 된 것은 현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자가 다른 모든 존재자에 비해, 여러 가지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니와, 이것은 첫째, 존재적인(ontischer) 우위인데, 그것은 이 존재자는 자기의 존재에 있어 실존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둘째, 존재론적인(ontologischer) 우위인데, 그것은 현존재가 세계 안에서 만나게 되는 다른 존재자에 대한 존재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끝으로 현존재는 모든 존재론을 가능케 하는 존재적 존재론적 조건(ontisch-ontologische Bedingung)으로서의 제 3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³⁵⁾고 Heidegger는 말한다.

이런 까닭에 현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자에 앞서서 물어져야 할 존재자이다.

31) Ibid., s. 12.

32) Ibid., s. 13.

33) Ibid., s. 13.

34) Ibid., s. 13.

35) Ibid., s. 13.

IV. 존재물음을 인도하는 실마리로서의 해석학적 현상학

현존재는 존재적·존재론적 우위를 가진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그러면 현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자는 어떻게 하여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며, 이해하면서 해석하는 일 속에서 조준이 맞춰지는 것일까?

“현존재는 자기 자신에게 존재적으로는 가장 친근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먼 것이다. 그러나 前존재론적으로는 낯선 것은 아니다.”³⁶⁾ 이것은 현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자에는 자기의 특유한 존재기구 자체는 은폐되어 있지만, 자기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존재이해가 미리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존재에 대한 학문적인 해석은 그것들이 실존적으로 근원적임과 마찬가지로 실존론적으로도 근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존적인(existenziell) 해석은 마땅히 실존론적인(existenzial) 분석을 요구하게 되고 이것은 존재물음이 현존재의 모든 근본구조를 충분히 밝혀려고 하는 태도를 취할 때 이루어진다.

현존재의 분석론은 어디까지나 존재물음의 첫째 관심사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하면 현존재에로 접근하는 통로의 양식을 획득할 것이 요구될 터인데, 현존재에로 접근하여 현존재를 해석하는 양식은 차라리 현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자가 자기 자신에 알맞게, 자기 자신의 편에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양식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양식은 이 존재자가 이 존재자의 평균적인 일상성에 있어 이 존재자를 근본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³⁷⁾

그러면 철학의 기초물음이 되는 이 근본적 탐구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가? 즉 현존재의 실존론적 분석은 어떻게 하여 가능한가?

Heidegger의 기초존재론의 당면목표는 존재이해를 가진 현존재의 존재기구로서의 실존성의 분석이니 그 방법은 현존재가 평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의 존재기구 현상을 밝혀서 개념화 하고 記述하는 방법, 즉 현상학적 방법으로서 가능하다. 이러하다는 것도 “현상학은 존재론의 주제로 되어야 할 바로 그것에로 접근하는 통로의 양식이며, 또 바로 그것을 증명하면서 규정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존재론은 현상학으로서만 가능하다>”³⁸⁾고 Heidegger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Heidegger는 자신의 현상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Heidegger는 자기나름의 현상학을 Phänomenologie의 그리스 어원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Phänomenologie는 Phänomen과 Logos와의 합성어이다. Phänomen의 그리스어 Phainomenon은

36) Ibid., s. 16.

37) Ibid., s. 16.

38) Ibid., s. 16.

Phainestai란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것은 <자신을 나타낸다·나타난다>(sich zeigen)를 뜻하므로 명사「파이노메논」(Phainomenon)이란「드르난 그대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파」(pha)란 빛이나 밝음을 뜻하는 그리스어「포스」(phos)와 가까운 말로서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³⁹⁾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상(Phänomen)이란 그리스인들이 존재자(ta onta, das Seiende)라고 불렀던 것을 밝히는 것, 즉 자기 자신에 있어서 자기를 보여주는 것”⁴⁰⁾을 뜻한다.

그리고 Logos는 Heidegger의 말에 따르면 말 속에서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Logos의 보다 근원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이다. Heidegger는 Logos를「이성」이나「이유」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이성이나 이유를 가능하게 해주는「말하는 기능」이다. 그것은 명제적 기능을 가지며 현상을 지시해 준다. 다시 말하면 Logos는 ~로서(als)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서」 보이도록 해주기 때문이다.⁴¹⁾ 따라서 Logos는 말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보인다는 뜻을 가진다.

Heidegger는 또, 현상학(Phänomenologie)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어로는「legein ta phainomena」로 언표되고 legein이란「apophainestai」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현상학이란 apophainestai phainomena, 즉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그대로 자기가 나타나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보게하는 것이다.⁴²⁾

이것이 현상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연구의 형식적 의미이고, 이것은 Husserl 때부터 현상학의 격률로 정식화되어온 <사상 자체에로!>(zu den Sachen selbst!)란 것을 표현한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상학은 그 연구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며, 또 현상학이라는 명칭은 그 연구의 사상내용을 성격짓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현상학이라는 이 말은 이 학문에서 논의되어야 할 <바로 그것>을 <어떻게> 제시하고 다룰 것인가 하는 일에 관해서 해명할 따름이다.

그리고 Heidegger는 현상적(phänomenal)과 현상학적(phänomenologisch)이라는 두 술어를 구별하면서, 현상적이라고 이름지어지는 것은 현상이라는 만나게 되는 양식에 의해 주어져 있으며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 현상학적이란 제시(Aufweisung)나 설명(Explikation)의 양식에 속해 있으며, 또 우리의 연구에 있어 요구되고 있는 개념성을 이루는 모든 것을 말한다⁴³⁾고 한다.

그러면 현상학이 <보여>주어야 할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두드러진 의미에 있어 현상이라고 이름지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본성에 있어 필연적으로 표면적인 제시의 주제로 되지

39) Ibid., s. 38.

40) Ibid., s. 38.

41) Ibid., s. 34. Richard E. Palmer, 李翰雨譯,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p. 190.

42) S. u. Z. s. 34. 채수환, Heidegger의 분석론, 철학연구, 28, 한국철학연구회, 1979, 12, p. 49.

43) Ibid., s. 37.

않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Heidegger에 의하면, 그것은 “우선 대개는 자기를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것, 즉 우선 대개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선 대개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에 속하고 있고, 더구나 이것의 의미와 근거를 이루는 어떤 것임이 분명하다”⁴⁴⁾는 것이다.

그러한 “특별한 의미에 있어 숨겨져 있는 것(verborgen) 혹은 은폐(Verdeckung) 속으로 다시 멀어지는 것, 또는 변장을 하지(verstellt) 않고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이런 저런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인 것이다. 이 존재는 그것이 망각되고 존재와 존재의미에 대한 물음이 던져져 있지 않을 만큼 심하게 은폐되어 있는 일이 있다고 하고, 또 현상학은 존재론의 주제로 되어야 할 바로 그것에 접근하는 통로의 양식이고, 또 그것을 증명하면서 규정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존재론은 현상학으로서만 가능하다.>”⁴⁵⁾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Heidegger에 있어서 현상학적 기술의 방법적인 의미는 「해석」(Auslegung)이다. 그에 의하면 “현존재의 현상학의 Logos는 헤르메네웨인(hermeneuein), 즉 해석한다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작업을 통해 존재의 본래적 의미 및 현존재의 고유한 근본구조들이 현존재 자체에 속해 있는 존재이해에 알려지게 된다.”⁴⁶⁾ “현존재의 현상학은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해석학」(Hermeneutik)이다. 그리고 이 근원적인 의미는 해석이 해야 할 바를 특징지워 준다.”⁴⁷⁾

이제 해석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존재의 존재에 대한 해석이”⁴⁸⁾ 된다. 철학적으로 보자면 이는 현존재의 가능성의 근본구조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현존재의 해석학은 곧 “실존의 실존성에 대한 분석이기”⁴⁹⁾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Heidegger의 해석학은 현존재의 본래적인 존재가능성들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Heidegger는 정신과학의 해석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은 근원적인 존재론적 해석작용에 근거를 두고 있는 파생적인 형태 즉 정신과학적 해석학은 보다 근원적인 기초존재론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되는 영역적 존재론임도⁵⁰⁾ 아울러 밝히고 있다.

Heidegger에 있어서 존재론과 현상학은 철학에 속하는 두개의 다른 전문분야가 아니다. 이 두 가지 명칭은 철학자체를 저마다 대상과 취급방법에 따라 성격지은 것으로 “철학은 현존재의 해석학에서 출발하는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인 것이며, 현존재의 해석학은 실존의 분석론으로서

44) Ibid., s. 35.

45) Ibid., s. 35.

46) Ibid., s. 37.

47) Ibid., s. 37.

48) Ibid., s. 37.

49) Ibid., s. 37.

50) Ibid., s. 38, Richard E. Palmer, 李 翰雨 譯,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p. 192.

모든 철학적인 물음을 이끌고 가는 실마리를 이 물음이 거기에서 나오고 또 거기서 되돌아 가는 거기에서 확정하는 것⁵¹⁾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우리는 Heidegger가 제기한 존재물음에 대하여, 존재물음을 되풀이 해야 하는 필연성에서 출발하여 존재물음의 구조와 우위, 그리고 존재개념의 근본구조를 밝힐 수 있는 해석학적 현상학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Heidegger는 존재물음이야말로 철학의 가장 내면적인 본질에 속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불문에 붙여진 존재망각이라는 근본경험에 입각하여 존재물음을 새로이 설정할 것을 기도한다.

그에 의하면 존재개념은 일반적으로는 이해되고 있지만, 이 이해는 불완전하며, 이 이해는 존재물음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존재물음의 방향마저 잃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물음은 하나의 특수한 물음이고, 기초적인 물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존재문제가 하나의 두드러진 물음으로서 밝혀지기 위해서는 물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속해 있는가? 하는 점이 존재의미에 앞서 먼저 물어져야만 한다.

묻는다는 일에는 묻어지는 것 이외에 물음이 걸려지는 자가 속해 있으며, 이 물음이 걸려지는 자를 우리는 물음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 물음에 있어서 묻어지는 것은 존재이며 이 묻어지는 것 안에는 묻어내어지는 것이 숨어 있고 이 묻어내어지는 것이 존재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존재의미를 묻어내기 위해서는 미리 물음이 걸려지는 자가 물음의 단초로서 요구된다. 그러면 어떤 존재자가 물음이 걸려지는 자일까? 존재를 주시하면서 이해하고 그 자체 물음을 구성하는 그러한 존재자는 바로 우리들 인간존재인 현존재이다.

한편 현존재는 자기의 존재에 있어서 그의 존재 그 자체에 관계하면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방식에서 실존인 것이며, 실존하고 있는 현존재의 존재기구를 Heidegger는 실존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실존적이 아니라 실존론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 모든 존재론이 거기서 발현할 수 있는 기초존재론은 현존재의 실존론적인 분석론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하여 Heidegger는 우리들 인간존재인 현존재는 자신의 실존과 함께 이미 현존재 자체의 존재규정성을 이루고 있는 평균적인 존재이해를 갖고 있다는 현사실을 포착한다. 이러한 존재이해는 일정하게 고정된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현상에 대한 경험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축적된 이해이다.⁵²⁾

51) S. u. Z. s.38.

52) Richard E. Palmer,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p.191.

Heidegger의 기초존재론의 당면목표는 존재이해를 가진 현존재의 존재기투로서의 실존성의 분석이고 그 방법은 현존재가 평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것의 존재기구 현상을 밝혀 개념화 하고 기술하는 방법, 즉 현상학적 방법이다. 현상학은 존재론의 주제로 되어야 할 바로 그것으로 접근하는 통로의 양식이고, 또 그것을 증명하면서 규정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존재론은 현상학으로서만 가능하게 된다.⁵³⁾ 그리고 Heidegger에 있어서 현존재의 현상학은 근원적인 의미에서의 해석학이다. 해석학은 은폐되어 있던 것을 밝혀 준다. 해석학은 事象을 은폐로부터 벗겨내는 근원적인 해석행위를 말한다. 왜냐하면 존재의 본래적 의미와 현존재의 근본구조들은 해석작용에 의해 현존재 자체에 속해 있는 존재이해에 알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Heidegger는, 철학은 현존재의 해석학에서 출발하는 보편적인 현상학적 존재론이고, 현존재의 해석학은 실존의 분석론으로서, 사물들의 존재 및 현존재의 존재의 가능태들을 탈은폐시킬 수 있는 이해와 해석의 존재론적 능력이라⁵⁴⁾고 규정함으로써 그의 실존분석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53) S. u. Z, s. 35.

54) Richard E. Palmer,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p. 193.

Zusammenfassung

Untersuchung der Seinsfrage bei M. Heidegger

Yang Yeong-ung

M. Heidegger versucht, das Horizont für die Interpretation des Sinnes von Sein überhaupt freizulegen. Und er sucht den Leitfaden im Menschen als Dasein, für das man gewisses Seinsverständnis hat.

Das Sein selbst, das das Seinsverständnis und die Fähigkeit hat, nach dem Sein selbst zu fragen, nennt er Existenz. Diese Seinsstrukturen des Existenz werden Existenzialien genannt. Bevor er den Sinn von Sein selbst fragt, analysiert er das Dasein existenzial.

Da diese vorliegende Arbeit vor der von Heidegger entwickelten Seinsanalyse die Strukturen der Frage und wissenschaftlichen Methoden zu erklären versucht, betrachtet die Arbeit die Phanomenologie als wissenschaftliche Methoden, die Notwendigkeit der Seinsfrage und die Strukturen der Frage zu erläutern.